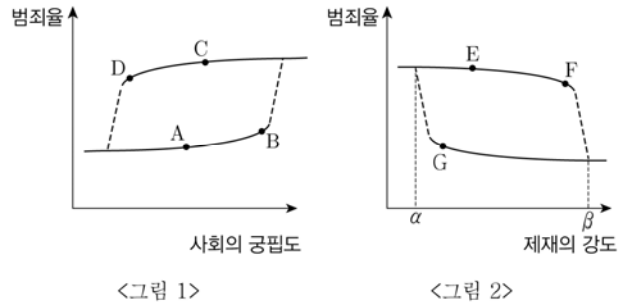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① 상전이(相轉移)는 아주 많은 수의 입자로 구성된 물리계에서 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 같은 액체 상태의 물질에 열을 가하면, 그 물질은 밀도가 천천히 감소하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갑자기 기체 상태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밀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처럼 특정 조건에서 계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이 상전이이다. 1기압하의 물이 0℃에서 얼고 100℃에서 끓듯이 상전이는 특정한 조건에서, 즉 전이점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물은 1기압에서 온도가 0℃ 아래로 내려가도 얼지 않고 계속 액체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다. 응결핵 구실을 할 불순물이 없는 경우 물이 어느점 아래에서도 어느 온도까지는 얼지 않고 이른바 과냉각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 ② 더 흥미로운 것은 어느점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까지 고체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다. 우뚝가사리를 끓여서 만든 우무는 실제로 어느점과 녹는점이 뚜렷이 다르다. 액체 상태의 우무는 1 기압에서 온도가 대략 40℃ 이하로 내려가면 응고하기 시작하는 반면, 고체 상태의 우무는 80℃가 되어야 녹는다. 우무 같은 물질의 이런 성질을 '이력 특성'이라고 부른다. 직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이력'이 현재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어느점과 녹는점이 사실상 똑같이 0℃인 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많은 물질의 상전이 현상에서 이력 특성이 나타난다.
- ③ 경제학자인 캠벨과 오머로드는 물리학 이론인 상전이 이론을 적용하여 범죄율의 변화 같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했다. 이 모형은 일종의 유비적 사고를 보여 준다. 그런데 사회가 수많은 개체들과 그것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구성된 계라는 점에서 수많은 입자들과 그것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구성된 물질계와 유사한 구조를 지녔음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임의적인 유비가 아니라 의미 있는 결론을 낳을 만한 시도이다.
- ④ 두 경제학자는 물질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온도와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듯이 한 사회의 범죄율이 대개 그 사회의 궁핍의 정도와 범죄 제재의 강도라는 두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고 가정한다. 재산도 직장도 없는 빈곤한 구성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높아지는 반면, 사회가 범죄를 엄중하게 제재할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연구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적 궁핍의 정도가 완화되거나 범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고 해서 그 사회의 범죄율이 곧장 감소하지는 않는다. 캠벨과 오머로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 같은 특정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사회도 높은 범죄율 상태와 낮은 범죄율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5] <그림 1>과 <그림 2>에서 각각 아래쪽의 실선은 낮은 범죄율 상태를 나타내고 위쪽의 실선은 높은 범죄율 상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사회가 점 A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다면 이 사회는 낮은 범죄율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사회의 공핍도가 어느 정도 더 커져도 범죄율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핍이 더 심해져 B 지점에 이르면 공핍이 조금만 더 심화되어도 범죄율의 급격한 상승, 즉 그림의 점선 부분에 해당하는 상전이(相轉移)가 일어나게 된다. 또 사회가 C처럼 높은 범죄율 상태에 있을 경우 공핍의 정도가 완화되어도 범죄율은 완만하게 감소할 뿐이지만, D 지점에 도달해 있는 경우 공핍의 정도가 조금만 줄어도 범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또 한 번의 상전이(相轉移)가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범죄율의 변화는 이력 특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사회의 공핍도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범죄율을 추정할 수 없고, 그것이 직전에 높은 범죄율 상태였는지 낮은 범죄율 상태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6]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제시한 모형이 실제 통계 자료에 나타난 사회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는 점이다. 이는 한 사회의 범죄 제재 강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회의 공핍도를 비롯한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강도가 변하는 경우 범죄율은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이력 특성을 포함한 상전이(相轉移)의 패턴을 나타낸다.

[문제 1] 위 글의 견해가 아닌 것은? 1)

- ① 한 사회의 특성은 특정 조건에서는 다른 조건에서와 달리 급격하게 변화한다.
- ②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응용하여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③ 유비적 사고의 타당성은 유비를 통해 연결되는 두 대상의 구조가 서로 유사할 때 강화된다.
- ④ 한 계의 상태가 어떤 조건에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낼 것인지는 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종류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 ⑤ 하나의 계가 드러내는 특성은 현재 그것을 제약하는 변수들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것이 지나온 역사적 경로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다.

[문제 2]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

<보 기>

ㄱ. 상전이에서 이력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물질이 과냉각 상태의 액체로 존재할 수 있다.
 ㄴ. 이력 특성을 갖는 물질은 온도와 압력을 알아도 그 물질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ㄷ.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물에서는 온도 변화에 따른 상전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문제 3] <그림 2>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 ① E 상태에서 범죄에 대한 제재가 어느 정도 강화되더라도 범죄율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다.
- ② F 상태에서 범죄에 대한 제재를 조금 더 강화하면 범죄율은 급감할 것이다.
- ③ G 상태에서 범죄에 대한 제재가 조금 더 약해질 경우 범죄율이 급증할 소지가 있다.
- ④ α 는 높은 범죄율 사회를 낮은 범죄율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재의 강도에 해당한다.
- ⑤ 범죄에 β 보다 더 강한 제재가 가해지는 사회에서 범죄율은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문제 4] <보기>의 ㉔를 반박할 근거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보 기>

A : 캠프와 오머로드의 모형으로 범죄율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회 현상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되리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어. 예를 들어 출산율만 해도 범죄율과는 전혀 다른 문제지.

B : 아니, 출산율의 변화도 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어. 자녀 양육 수당이나 다자녀 세금 감면 같은 경제적 유인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반면, 교육비 부담 같은 경제적 압박의 심화는 출산율을 감소시키지. 중요한 것은, ㉔출산율의 이런 변화에서도 이력 특성이 나타난다는 점이야.

- ① 실제로 어느 고출산율 사회에서 정부가 육아 지원을 30%나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변화는 미미하였다.
- ② 저출산율 사회를 탈피하게 하는 육아 지원의 규모가 고출산율 사회에서 저출산율 사회로 이행하는 시점의 육아 지원 규모와 일치하였다.
- ③ 정부의 육아 보조금 같은 긍정적 요인보다 양육비와 교육비의 증가 같은 부담 요인이 출산율에 훨씬 더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④ 자녀 양육 수당의 증액은 출산율 변화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쳤던 데 반하여 다자녀 세금 감면 혜택의 강화는 출산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⑤ 자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증대가 출산율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러한 변화를 야기한 교육비 수준은 명확한 금액으로 제시하기 어려웠다.

Today's 비문학 해설

LEET 지문이지만 지문의 난이도나 문제의 수준은 수능과 유사하다. 겁먹을 것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 글은 과학 원리를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글인데 글 전체의 논지 전개는 유추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단히 어려운 유비추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글을 통해 유추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글의 독해 방식을 연습해 보기 좋은 지문이다.

㉠ 문단을 보자.

㉠ 상전이(相轉移)는 아주 많은 수의 입자로 구성된 물리계에서 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 같은 액체 상태의 물질에 열을 가하면, 그 물질은 밀도가 천천히 감소하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갑자기 기체 상태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밀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처럼 특정 조건에서 계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이 상전이이다. 1기압하의 물이 0°C에서 얼고 100°C에서 끓듯이 상전이는 특정한 조건에서, 즉 전이점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물은 1기압에서 온도가 0°C 아래로 내려가도 얼지 않고 계속 액체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다. 응결핵 구실을 할 불순물이 없는 경우 물이 어느점 아래에서도 어느 온도까지는 얼지 않고 이른바 과냉각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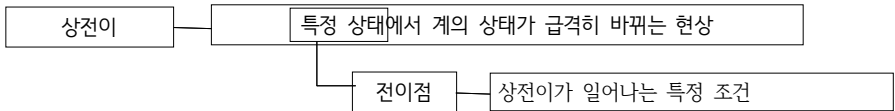
‘상전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 온다. 아무리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것이라도 ‘개념’에 대한 설명은 겸손한 마음으로 정확하게 확인해 두기 바란다.

여기서 계의 상태가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직접적으로 계의 상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물’의 예를 통해 볼 때, 고체, 액체, 기체로의 상태 변화를 계의 상태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 문단은 ‘상전이’와 ‘전이점’의 개념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

이과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일지도 모르나 선생과 같은 문과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다. 선생이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다. 수능 비문학은 우리의 이해의 깊이를 묻지 않는다. 주어진 정보를 얼마나 정확히 확인했는지를 묻는 시험이다. 그러니, 생소한 개념이 나온다면 설명된 지문의 범위 내에서 정확히 확인만 해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짧은 정보만 가지고 너무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칫 독해 전체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있는 대로 확인하자.

㉠ 문단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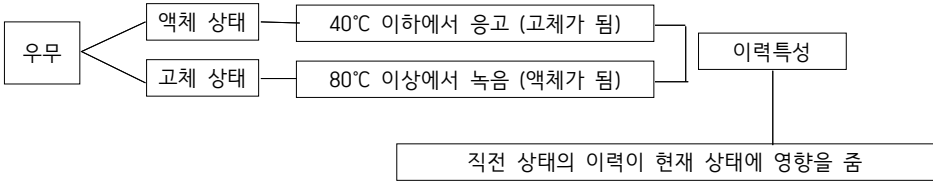
괜히 풀었다. 별 것 없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자.

㉡ 더 흥미로운 것은 어느점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까지 고체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다. 우뭇가사리를 끓여서 만든 우무는 실제로 어느점과 녹는점이 뚜렷이 다르다. 액체 상태의 우무는 1기압에서 온도가 대략 40°C 이하로 내려가면 응고하기 시작하는 반면, 고체 상태의 우무는 80°C가 되어야 녹는다. 우무 같은 물질의 이런 성질을 이력 특성이라고 부른다. 직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이력’이 현재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어느점과 녹는점이 사실상 똑같이 0°C인 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많은 물질의 상전이 현상에서 이력 특성이 나타난다.

㉠ 문단에서 예로 든 ‘물’은 100°C에서 상전이가 일어난다고 했다. 100도 이전에는 액체 상태였다가 100도를 기점으로 기체 상태가 되고, 반대로 100도 이상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했던 물은 100도 이하에서는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옴을 알 수 있다. 이것을 ㉠ 문단에서는 상전이라고 설명했다.

㉒ 문단은 '이력 특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상전이의 또다른 형태를 '우무'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주저리주저리 설명할 만한 복잡한 글이 아니므로 이 문단도 역시 도식화 해 보겠다.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원래 잔소리가 많은 사람들이니 나도 노파심에 사족을 붙여 보겠다. 여러분의 이해와 나의 이해가 일치하는지 생각해 보자.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물'과 같은 물질은 계의 변화가 하나의 기준(온도)만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물질(우무)은 이전에 어떤 계에 속한 상태에 따라 하나의 온도가 아니라 다른 온도의 기준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성질을 '이력 특성'이라고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읽었다.

여러분의 독해와 일치하는가?

선생이 ㉑ 문단과 ㉒ 문단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위에 선생이 정리한 문장을 다시 한번 봐 주기 바란다. 혹시 지문에서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배경지식으로 끌어 들어서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가? 없다. 다시 말해 어떤 지문을 독해하고 이 지문을 스스로 정확히 읽었는지 확인해 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긴 문단의 내용을 한 문장 정도로 짧게 요약해 보는 것이다. 무엇을 읽었는지 어렵듯이 알겠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은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독해를 한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 어떤 문장을 읽을 때 짧게 짧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의 독해력을 일취월장 시킬 것이다. 단,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문에서 주어진 정보 내에서 요약을 해야 한다. 절대로 주어지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리이러한 내용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장 좋은 요약은 살을 발라내고 뼈를 찾는 것이다. 고양이의 뼈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개의 뼈를 가져 온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주의하자.

말이 길어졌다. 직업병이라고 넓게 이해해 주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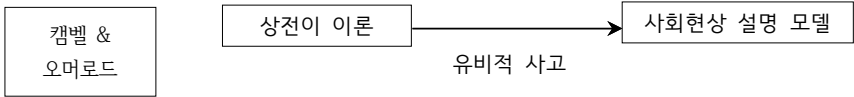
그럼 ㉓ 번째 문단으로 건너 가 보자.

㉓ 경제학자인 **캠벨과 오머로드**는 **물리학 이론**인 상전이 이론을 적용하여 범죄율의 변화 같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했다. 이 모형은 일종의 **유비적 사고**를 보여 준다. 그런데 사회가 수많은 개체들과 그것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구성된 계라는 점에서 수많은 입자들과 그것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구성된 물질계와 **유사한 구조**를 지녔음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임의적인 유비가 아니라 의미 있는 결론을 낳을 만한 시도이다.

㉓ 문단은 일단 사람이 이름이 나왔다. 먼저 확인해 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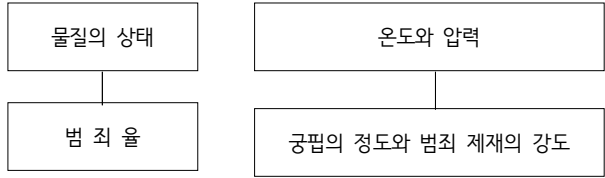
캠벨과 오머로드는 ㉑, ㉒ 문단에서 설명한 물리학의 '상전이 이론'을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했으며 이때 '유비적 사고'를 사용했는데 유비추론의 대상이 유사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론(신뢰할 만한 결론)을 보이는 시도라고 말하고 있다.

도식화 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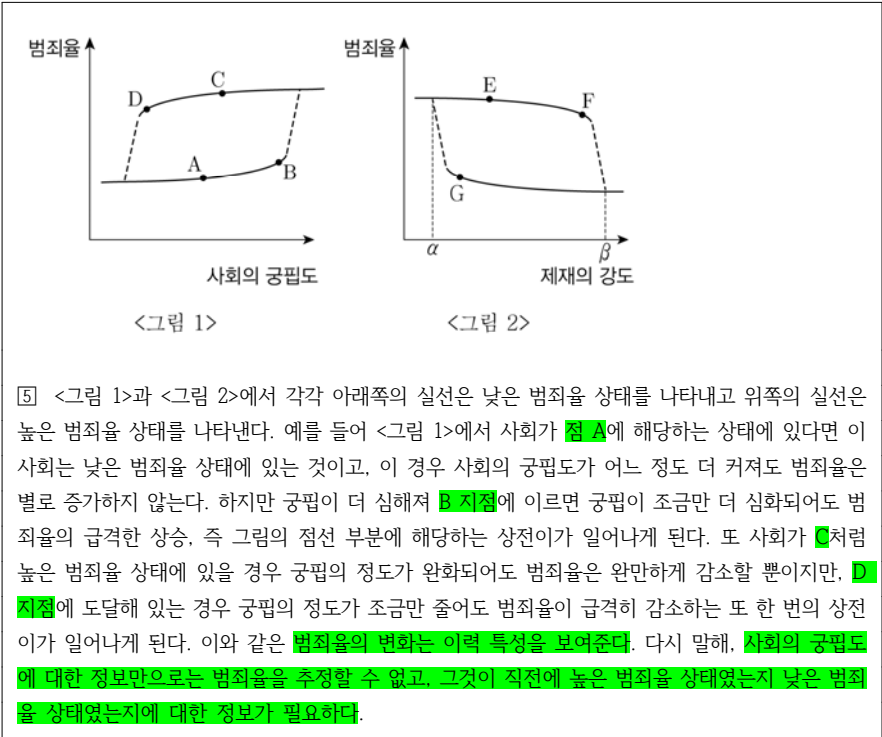
㉔ 두 경제학자는 물질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온도와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듯이 한 사회의 범죄율이 대개 그 사회의 공핍의 정도와 범죄 제재의 강도라는 두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고 가정한다. 재산도 직장도 없는 빈곤한 구성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높아지는 반면, 사회가 범죄를 엄중하게 제재할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㉓ 문단에서 '상전이 이론'과 두 학자가 제시한 '사회 현상 설명 모델'이 유사한 구조라고 밝혔다. 어떻게 유사한지가 ㉔ 문단에서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 연구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적 공핍의 정도가 완화되거나 범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고 해서 그 사회의 범죄율이 곧장 감소하지는 않는다. 캠벨과 오머로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 같은 특정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사회도 높은 범죄율 상태와 낮은 범죄율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㉔ 문단의 후반부에는 범죄율을 결정하는 두 요소가 변화했음에도 범죄율이 즉각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 상황을 지적하면서 범죄율의 상태가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 점 A = 낮은 범죄율 (공핍도가 커져도 범죄율의 급격한 증가 X)
- 점 B = 낮은 범죄율 (공핍도가 커지면 범죄율의 급격한 증가 O)
- 점 C = 높은 범죄율 (공핍도가 줄어도 범죄율의 급격한 감소 X)

점 D = 높은 범죄율 (공평도가 줄면 범죄율의 급격한 감소 0)

㉔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되어 있다.

- 범죄율의 변화는 이력 특성을 보여준다.
- 사회의 공평도에 대한 정보(온도와 압력)만으로는 범죄율(물질의 상태)을 추정할 수 없고,
- 그것이 직전에 높은 범죄율 상태(액체 혹은 고체)였는지 낮은 범죄율 상태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So 범죄율의 변화는 공평의 정도나 제재의 정도만으로는 추정할 수 없고,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하므로 마치 우무가 이력특성을 보여 주는 것처럼 사회가 이전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야 함을 말하고 있다.

㉕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제시한 모형이 실제 통계 자료에 나타난 사회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는 점이다. 이는 한 사회의 범죄 제재 강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회의 공평도를 비롯한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강도가 변하는 경우 범죄율은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이력 특성을 포함한 상전이의 패턴을 나타낸다.

㉖ 문단에서는 '캠벨과 오머로드'가 제시한 이론이 사회현상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이라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고 있다.

그럼 이제 문제에 도전해 보자.

[문제 1] 위 글의 견해가 아닌 것은? 5)

- ① 한 사회의 특성은 특정 조건에서는 다른 조건에서와 달리 급격하게 변화한다.
- ②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응용하여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③ 유비적 사고의 타당성은 유비를 통해 연결되는 두 대상의 구조가 서로 유사할 때 강화된다.
- ④ 한 계의 상태가 어떤 조건에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낼 것인지는 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종류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 ⑤ 하나의 계가 드러내는 특성은 현재 그것을 제약하는 변수들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것이 지나온 역사적 경로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다.

사실적 확인 문제다. 하나씩 근거를 찾아 보자.

- ①번 선지는 ㉔ 문단의 점 B와 점 D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번 선지는 물리 이론을 이용하여 만든 사회이론이(㉕ 문단) 사회 현상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진술한 ㉖ 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번 선지는 ㉕ 문단의 "유사한 구조를 지녔음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임의적인 유비가 아니라 의미 있는 결론을 낳을 만한 시도이다." 부분에서 표현은 다소 다르지만 같은 진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번 선지는 ㉑문단과 ㉒문단에서 제시된 '물'과 '우무'의 경우를 통해 유효한 추론을 할 수 있다. 물은 10 0°C를 기준으로 상태가 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지만 '우무'의 경우는 전단계의 이력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종류와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 ⑤번 선지는 "온도와 압력 / 빈곤율과 제재의 정도" 만으로 상전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이전의 이력을 살펴야 함을 진술한 위 글의 논지에서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다.

[문제 4] <보기>의 ㉔를 반박할 근거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㉔

<보 기>

A : 캠벨과 오머로드의 모형으로 범죄율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회 현상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되리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어. 예를 들어 출산율만 해도 범죄율과는 전혀 다른 문제지.

B : 아니. 출산율의 변화도 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어. 자녀 양육 수당이나 다자녀 세금 감면 같은 경제적 유인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반면, 교육비 부담 같은 경제적 압박의 심화는 출산율을 감소시키지. 중요한 것은, ㉔출산율의 이런 변화에서도 이력 특성이 나타난다는 점이야.

- ① 실제로 어느 고출산율 사회에서 정부가 육아 지원을 30%나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변화는 미미하였다.
- ② 저출산율 사회를 탈피하게 하는 육아 지원의 규모가 고출산율 사회에서 저출산율 사회로 이행하는 시점의 육아 지원 규모와 일치하였다.
- ③ 정부의 육아 보조금 같은 긍정적 요인보다 양육비와 교육비의 증가 같은 부담 요인이 출산율에 훨씬 더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④ 자녀 양육 수당의 증액은 출산율 변화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쳤던 데 반하여 다자녀 세금 감면 혜택의 강화는 출산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⑤ 자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증대가 출산율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러한 변화를 야기한 교육비 수준은 명확한 금액으로 제시하기 어려웠다.

마지막 문제다. 힘 내자.

<보기>부터 살짝 거들떠 보자.

A는 캠벨과 오머로드의 견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B는 이와 반대로 캠벨과 오머로드의 견해를 신뢰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출산율은 증가시키는 경제적 유인과 경제적 압박 이외에 이력특성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력특성”이 나타남을 반박하는 견해, 다시 말해 “이력특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진술하고 있는 선지를 고르라는 것이다.

한 뼉씩 차례대로 축척보자.

①번은 출산율을 변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인 경제적 유인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러한 직접적인 변수 이외에 이전의 상태까지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①은 ㉔를 반박하는 진술이 아니라 오히려 ㉔의 입장을 두둔하는 견해이다.

②번은 육아지원 규모에 따라 저출산 사회와 고출산 사회로 바뀐다고 했으므로 이전의 상태를 살펴 볼 것 없이 경제적 유인 하나만으로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②번 선지는 출산율의 변화를 살필 때 이전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㉔의 견해에 대한 적절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답은 나왔지만 ③, ④번 선지는 눈여겨 보자.

우리가 비문학 문제를 풀다가 함정에 빠지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를 보여 주는 선지이다.

③번과 ④번 ⑤번 선지를 읽으면서 맞는 진술인지 틀린 진술인지를 고민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수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먼저 검토할 것은 이 지문 속에서 언급한 내용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번, ④번, ⑤번 선지가 진술하고 있는 어떤 요인이 더 크다 혹은 작다라고 하는 영향력의 크기에 관한 정보는 이 글 어디에도 주어져 있지 않다. 상천이를 일으킬 때 온도와 압력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 역할을 하는지 읽은 적이 있는가?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고 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하자. 지문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머리 속에서 무리하게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머리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이 답을 찾는다. 명심하자.

수고 많았다. 내일은 오늘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길 바란다.

한 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일년이 됨을 잊지 말자. 조직원 여러분 모두 즐공!!!

[정답]

- 1) ④
- 2) ③
- 3) ④
- 4) ②
- 5) ④
- 6) ③
- 7) ④
- 8) ②